

기획특집

교통분야의 성과와 향후 과제

제주발전연구원 연구위원 이 성 용

I. 들어가며

제주지역은 세계인들이 즐겨 찾는 국제관광도시이다. 또한 유네스코가 인증한 세계자연유산을 비롯한 천혜의 자연경관 및 자원을 체험하기 위해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들의 증가와 더불어 제주도민들도 활발한 경제활동에 따른 교통수요의 증대로 인해 다양한 교통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민선5기의 공약 중 교통분야의 주요내용과 민선5기 3년 동안의 성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II. 교통분야 주요 공약 및 3년의 주요성과

1) 교통 관련 주요공약

민선5기 교통분야 주요공약에서는 ‘혁신적 녹색 교통체계 구축’을 위하여 수요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편 확충, 녹색 자전거 도로망 확보, 누구나 안전하게 길을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구축, 혁신적 신교통수단 트램(노면전차) 도입 등을 제시하였다. 제시된 공약 중에서 트램 도입을 제외하고는 현재 추진되고 있다.

트램의 경우는 도심 내 도입에 대해 2011년에는 타당성이 있다고 제시되었지만, 2012년 7월 ‘민선5기 출범 2주년’ 기자회견에서 용인·김해·의정부 등의 사례와 제주

특별자치도의 재정형편 등을 고려해 당분간 논의를 진행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현재 보류되고 있다.

2) 민선5기 3년의 주요성과

제주특별자치도 민선5기 교통분야의 주요성과로는 우선 대중교통이용객이 2009년 4,100만명에서 2012년 4,800만명으로 증가하였다. 대중교통분야 투자도 2009년 171억원에서 247억원으로 44% 확대되었다. 또한 교통카드시스템의 경우에도 제주도내지역으로 제한되어 이용가능하던 것에서 전국으로 호환되도록 개선된 것이 민선5기 3년의 교통분야 주요성과 중의 하나이다. 주요사업으로는 버스 정류소 확대 지정, 전세버스 CCTV설치 지원, 전세버스 복지회관 건축, 서귀포터미널 일원화 등이 이루어졌다. 신규사업으로는 택시 감차 47대에 사업비 19억원이 집행되었고, 화물차 네비게이션, 교통약자이동차량 확보, 회전교차로 90개소 등이 확보되었다.

〈표 1〉 민선5기 도정 3년간 교통분야의 주요성과

주요 지표별	2009	2012	비고
대중교통 이용객	41백만명	48백만명	7백만명 증가
대중교통 투자	171억원	247억원	44% 증가
교통카드시스템	도내지역	전국 호환	도서지역 확대
정류소 확대 지정	2,196개소	2,516개소	320개소 증가
전세버스 CCTV설치 지원	-	703대	2.5억원
전세버스 복지회관 건축	-	1개소	2.2억원 지원
서귀포터미널 일원화	2개소	1개소	통합 또는 일원화
택시 감차	-	47대	19억원
외국어통역택시	63대	103대	40대 증가
브랜드콜택시	600대	1,514대	914대 증가
화물차 네비게이션	-	640대	640대 증가
교통약자이동차량	-	22대	22대 증가
회전교차로	-	90개소	90개소 증가
교통사고디지털운행기록계 장착	-	6,207대	6,207대 증가

자료 :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또한 이용자 중심의 버스노선 개편 등 대중교통서비스 확충을 위한 노력과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 여건 개선을 위하여 고등학교 및 도서관 등과 연결되는 심야버스를 22시부터 24시까지 운영하고 있다. 장애인·70세 이상 어르신 공영버스 무료 이용 및 통학버스 안전성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전국에서 선도적으로 2012년 5월부터 후불교통카드 사용을 전면 확대 시행했고, 전국 최초로 2012년 9월에는 도서지역(추자, 우도)까지 교통카드시스템을 확대하였다. 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시책으로 도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시외버스 구간요금제를 도입했다.

이러한 사업의 결과, 2013년 3월 국토교통부의 『2012년 대중교통 현황조사』 결과 대중교통 이용자 만족도가 전국 2위로 나타났다. 대중교통 이용 종합만족도는 전국 2위,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 전국 최고, 시도별 시내·외 버스 요금은 전국 최저였다.

〈표 2〉 민선5기 도정 3년간 대중교통서비스 확충 주요내용

구 분	2009	2013	비 고
제주시내 노선	26노선 161대	32노선 184대	23대 증차
비기림 승차대	1,217개소	1,537개소	61% 증가
버스정류소 지정	2,196개소	2,516개소	320개소 추가
LED 전광판	187대	349대	162대 증가

민선5기 3년 동안 도내교통에 대한 관심과 사업뿐만 아니라 제주도와 타지역을 연결한 교통 및 물류 등에 대한 정책들이 추진되었다. 특히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선도할 항만인프라 확충 및 활용 극대화를 도모하였다. 제주의 항만은 제주물동량의 98%를 처리하고 있으며, 물동량은 2010년 10,517천톤에서 2012년 11,700천톤으로 11.2% 증가하였다. 또한 여객선 이용선석 추가 배정을 통한 연륙교통의 편의를 증진했다. 2010년 7개 노선 14척에서 2013년 9개 노선 17척으로 증가하였다. 뿐만 아니라 제주항 국제여객터미널 건설로 국제크루즈 항만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도내교통 뿐만 아니라 도외와 연결되는 교통수단인 항공교통의 경우 제주공항이 제주도내 통행의 기·종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리고 제주국제공항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의 수가 상위계획 및 관련계획에서 제시하는 것보다 활주로상의 포화가 빠르게

발생되고 있다. 2010년 6월부터 2012년 4월까지 국토연구원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제주공항의 포화시기가 정부가 예측한 2025년보다 6년이나 빠른 2019년으로 진단하였다. 동시에 공항건설이 통상 10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조속한 대책 마련을 제안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제주지역 공약에서는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건설 추진, 최종 방안은 도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바탕으로 결정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2013년 정부 본예산에「공항개발조사비 5억원」을 계상했고, 정부에서 당초계획 2014년보다 1년 앞당긴 올해 항공수요 조사·예측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는 2013년 6월부터 2014년 7월까지 제주지역 항공수요 조사·예측을 실시한다.

『2012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의 대중교통 개선대책에 대한 질문에서 도민들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것으로, ‘버스노선(탄력시간 등)체계 개선’이 54.1%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운수종사자 친절 및 안전운행’ 19.6%, 버스정보시스템 개선이 10.9% 순이었다. 특히 버스를 많이 이용하는 10, 20대에서 이러한 개선사항이 높게 나타났다.

III. 향후과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중교통서비스 개선과 관련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이러한 대중교통 운영과 관련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도내교통과 도외교통으로 구분해서 제시한다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내교통의 경우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2012 제주 사회조사 및 사회지표』에서는 제주시 및 서귀포시 동지역의 인구가 많아 버스노선에 대한 개선 비율이 높았고, 제주시 읍면지역은 버스의 불규칙성으로 인해 시스템 개선요구가 높았다.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개선 요구가 많았다.

따라서 버스의 경우는 노선 조정 및 나아가서는 버스노선 입찰제나 순환노선 등 도민들과 관광객들의 복잡하고 많은 수요를 충족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교통수단의 분담률 조정의 문제, 시내와 읍면지역간 연결, 운영개선 등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에서 항공, 해양 등 교통안전 선진화를 언급하고 있으며,

제주지역 대선공약으로 포함된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기존 제주공항을 확장하거나 신규건설을 추진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확장이나 신규냐의 결정 문제이며 제주공항의 확충은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한다.

현재 제주공항은 수용능력을 극대화하여 운영 중이며, 항공안전의 문제와 제주국 제자유도시의 완성이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에 달려 있다. 안전을 담보로 운영을 극대화하기에는 현재의 제주공항은 한계에 도달했다. 